

C3002 3형 혼합형(VUL)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3형 혼합형(VUL)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위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위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신한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이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펀드명칭	3형 혼합형(VUL)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46862	고난도펀드 여부	해당하지 않음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4.12.14
운용기간	2022.01.01 ~ 2022.03.31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제한된 주식투자로부터 부분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며, 주로 국공채, 특수채, 그리고 제한된 수량의 우량등급의 회사채에 투자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자본 이득과 이자 수익을 달성함에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은 초과수익을 위한 여러 요인들(듀레이션, 수익률선, 신용, 고평가/저평가 분석 등)을 활용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3형 혼합형(VUL)	자산 총액 (A)	8	8	-2.18
	부채 총액 (B)	0	0	-1.76
	순자산총액 (C=A-B)	8	8	-2.18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5	5	1.94
	기준가격 (E=C/D × 1000)	1,669.76	1,602.32	-4.04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에 입금(인출, 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주식부문] 1월에는 미국 연준의 긴축 부담,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 돌출, 내부 수급불안, 오미크론 확산 등의 이슈로 비우호적 여건이 지속되었습니다. 2월 초반 미국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호조, 달러 약세,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연준의 긴축 스탠스 강화,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코로나 재확산 등이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하여 상승폭을 축소 마감했습니다.

[채권부문] 분기 초 국내 채권시장은 1) 1월 금통위에서의 25bp 기준금리 인상 및 예상보다 매파적인 스탠스, 2) FOMC에서 연준의 조기 긴축 가능성이 부각되며 약세로 출발하였습니다. 이후 1) 추정 브리핑에서의 기재부 시장안정화 의지 확인, 2) 2월 금통위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 3)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인해 금리는 강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기 중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펀드 평균 듀레이션은 중립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레인지 트레이딩을 통한 방향성 전략과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됨에 따른 커브 전략 등이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주식부문] 국내외 이익모멘텀은 이미 작던 2분기 말을 기점으로 하락 전환된 상태이며 현재까지 유지 중인 상황에서 실물경기를 대변하는 기업 이익의 둔화 속에 미국의 긴축행보는 증시의 지속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표면적인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펀드는 올 2분기 이후 개별 산업과 기업별 이익추정치 변화에 기반한 종목선정에 의한 초과수익 확보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계획입니다.

[채권부문] 2분기 국내 채권 시장은 1) 높은 물가상승률 지속, 2) 빨라진 미 연준 긴축정책의 약세 요인과 1) 기준금리 2.50%를 반영한 금리 레벨, 2) 추경 불확실성 일부 해소 등의 요인의 강세 요인이 상존하며 국고채 3년 2.70~3.20%, 5년 2.90~3.30%, 10년 2.90~3.40%의 레인지 속에 변동성이 큰 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크레딧의 경우 높은 국고 금리 변동성이 지속되며 크레딧 채권의 수요 위축 국면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2분기 모든 섹터에서 발행 대기 물량도 상당하여 신용스프레드는 약세 흐름이 지속될 전망임에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며 당분간 비중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	--------	--------	--------	---------

3형 혼합형(VUL)	-4.04	-4.42	-7.35	-6.13
(비교지수 대비 성과)	(-0.40)	(-0.10)	(-1.30)	(-1.82)
비교지수(벤치마크)	-3.64	-4.32	-6.05	-4.31

※ 비교지수(벤치마크): KOS종합채권지수 X 65% + KOSPI X 25%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3형 혼합형(VUL)	-6.13	9.34	8.07	10.08
(비교지수 대비 성과)	(-1.82)	(-0.91)	(0.51)	(-1.22)
비교지수(벤치마크)	-4.31	10.25	7.56	11.30

※ 비교지수(벤치마크): KOS종합채권지수 X 65% + KOSPI X 25%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	-	-	-	-	-	-	-	-	-	-	-
당기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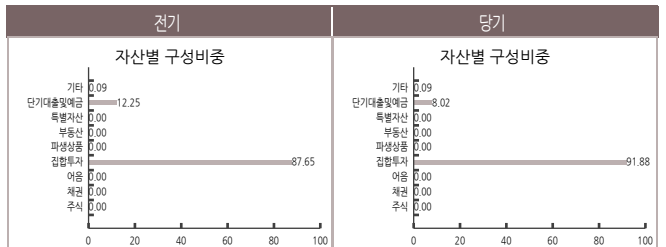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7	0	0	0	0	0	1	0	8
(1.00)	(0.00)	(0.00)	(0.00)	(91.88)	(0.00)	(0.00)	(0.00)	(0.00)	(0.00)	(8.02)	(0.09)	(100.00)
합계	0	0	0	7	0	0	0	0	0	1	0	8

※ (): 구성비중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KODEX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61.31	6	
2	집합투자증권	SOL 200TR	27.62	7	
3	단기상품	은대(우리은행)	8.02	8	
4	집합투자증권	KOSFIF 국고채10년	2.94	9	
5				10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 좌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KODEX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수익증권	5	5	대한민국	KRW	61.31
SOL 200TR	수익증권	2	2	대한민국	KRW	27.62
KOSFIF 국고채10년	수익증권	0	0	대한민국	KRW	2.94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우리은행	2010-04-01	1	0.92	-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일계약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서장	43	81	2,479,256	-	-	2119000125
이대석	차장	40	81	2,479,256	-	-	2120001220
김태현	과장	39	81	2,479,256	-	-	2119000109
윤유라	대리	30	81	2,479,256	-	-	2121001284

※ 성명이 굵게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20.09.17 ~ 현재	이대석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21.07.16 ~ 현재	윤유라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0.02	0	0.02
판매회사	0	0.17	0	0.16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	0	-
일반사무관리회사	0	-	0	-
보수합계	0	0.20	0	0.19
기타비용	0	-	0	-
매매 증개수수료	단순매매 증개수수료	0	-	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	0
	합계	0	-	0
증권거래세	0	-	0	-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 증개수수료는 제외하였습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증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78	0.045	0.825
당기	0.7801	0.0449	0.825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증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증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증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6.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 유동성 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 현황

- 가. 운용전략 특성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 등
 - 시장위험 및 개별증권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개별 증권 가격 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정치·경제상황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 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위험 관리 방안

- 가. 펀드의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안 등
 - 신탁약관 및 법규에 따라 투자한도 및 모든 법적 규제 등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 되고 있으며, 내부 투자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투자 전략의 점검, 성과 측정과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나. 재간접펀드 등 위험관리조치 내역 및 운용사의 통제권한과 수단 등
 - 해당사항 없음

▶ 주요 비상대응계획

- 재해 등의 위기상황 발생 시 리스크 관리, 투자 자산 모니터링 등 회사의 주요 기능이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연속성계획(BCP)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형 혼합형(VUL)'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단서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